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3. 08. 16.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다 같이

- 1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 2 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 3 주 찬양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나눔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인도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지만 그곳에는 참된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욱기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 전도서, 욱기를 통해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2년 이상의 시간을 빼앗아 갔고 그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학교와 자녀들의 교육은 비대면으로 열리게 되었고, 관중 없는 축구 경기와 야구 경기는 일상이 되었고, 경제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예배마저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혼자 인터넷으로 세상을 보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모이기를 반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 시대에 서로 멀리하라!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위기일 때, 전쟁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뭉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는 해야 하지만,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는 더더욱 가까이하고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서로를 믿어주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서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게으르다. 내가 혼내지 않으면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정신 상태가 썩었다!” 이렇게 자녀를 불신한다면 그 가정은 날마다 혼내고 야단치는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불신으로 그 집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녀가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면 자녀들은 스스로 좋은 길을 잘 개척할 것이고, 부모님들은 날마다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날마다 찬송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 보다 더 큰 위기가 와도 서로 함께 하므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하고 순종하며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믿어주면서 점점 더 가까워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같은 소망을 품으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같은 방향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듯이 소망이 다르면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소망, 같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세상에서 무조건 출세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꿈과 소망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의 명문가도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망과 자녀의 소망이 같습니다. 함께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성공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가족이 같은 소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삼겹 줄과 같이 견고한 영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같은 비전과 소망을 품도록 가르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앞에서 서운함보다 같은 소망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들의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그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소망을 품고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합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이 당연한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함께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은 삼겹 줄과 같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위기나 문제를 극복하기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면 그 이상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이 사랑할 때, 평소보다 수십 배 이상의 에너지와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줍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면 코로나 따위가 우리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함께 하면 이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 명이였다면 그들은 세계 복음화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디모데가 없었다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기에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광야도 같이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따르기보다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함께 품으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매일 더욱 가까워져서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한 가정과 교회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눔

다 같이

1. 우리 가정이 함께 꿈꿀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사랑을 담은 말을 건네 봅시다.

증보 기도

다 같이

1. 큰빛은혜교회의 예비하신 건축(건물, 교회, 땅)이 속히 이루도록
2. 믿음 좋은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도록
3. 산위에교회, 이스라엘 회복, 컴패션 아이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4. 홈리스, 버스킹, 어라이즈 워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